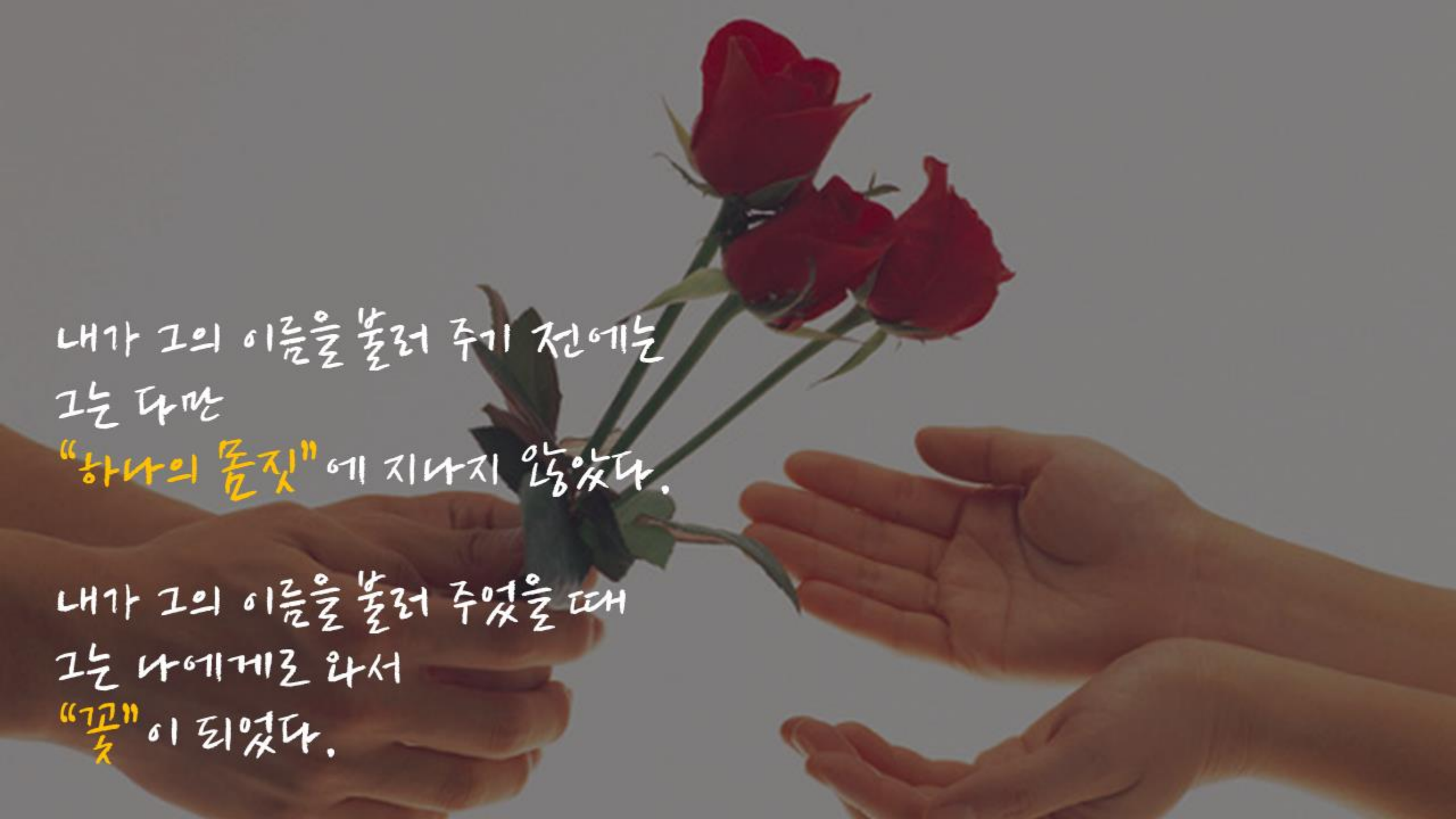


스포츠워킹에 TPO를 입히다

오늘의 브런치는 스포츠워킹!

스포츠워킹의 Re-Booming을 통한 프로스펙스 워킹화 시장 리더십 강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기쁨”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Daily Routine”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특별한 취미”가 되었다.

기획서 워킹경로

1. 상황분석



2. 문제점



3. 솔루션



4. 컨셉



5. IMC

01 / 상황분석 3555 주부들은,



박소현
'동네 걷기 동네 계획' 저자

한국 주부 하루 평균 걷는 시간, 미국의 7배

- Q. 이번 연구 대상 집단이 30, 40대 전업주부인 점이 눈에 띈다.
- A. 동네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집단을 찾았더니 애 키우는 엄마들이더라.
워킹맘도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삼았다.

*출처 : 주간동아 2016.03

>> 걸음이 생활화 된 '워커'들이다

01 / 상황분석 그녀들의 워킹에는,

트레일워킹

Q. 자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트레일의 매력일 텐데요.

A. 젊은 사람들은 산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중년층은 산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연의 감동을 세대가 아는 거죠.



스포츠워킹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요일 2시간은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혼자 **집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 걸어요.** 그 동안 몰랐던 계절의 변화가 발끝에서 느껴지고, 규칙적인 운동이 돼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출처 : 월간아웃도어 2015. 5월호

*출처 : 리빙센스

>> '트레일워킹'과 '스포츠워킹'이 공존하고 있다

01 / 상황분석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특별한 트레일워킹

Q. 트레일워킹 시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63.4%

언제 갈지
먼저 계획한다

36.6%

즉흥적

Q. 트레일워킹을 즐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A. 집에서 거리가 30분 이상 (48%)



일상적인 스포츠워킹

Q. 스포츠워킹 시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정적

47%

유동적

53%

Q. 스포츠워킹을 즐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A. 집 근처 동네 (61%)

*출처 : 3555 여성워커 및 피트니스 센터 회원대상 자체설문조사 N=130

>> 트레일워킹= '특별한' 취미 / 스포츠워킹= '일상적' 걷기

01 / 상황분석 트레일워킹이 '특별한 취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Time

트레일은 행위보다는 '오래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 자체를 의미한다.

Place

트레일(Trail) 오솔길, 시골길, 산길을 뜻한다.

Occasion

산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를 한다.

* 출처 : 토요경제, 2016.07 .20

T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은 여유로운 하루

P

오솔길, 시골길

O

자연을 느끼고 싶은

>> 명확한 TPO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특별한 취미'가 되는 트레일워킹

02/문제점

반면 TPO가 불명확한 스포츠워킹은
'특별하고 멋진' 취미가 아닌,
그저 그런 'Daily Routine'이 되어 버렸다.



03 / 솔루션

따라서 프로스펙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 스포츠워킹의 TPO를 정해주어, '특별한 취미'가 되게 하는 것!

Case 1_

던킨도너츠 "Flavor Radio"



출근할 때(Time) 대중교통
(버스; Place)에서 모닝커피
를 마시는 상황(Occasion)
을 던킨도너츠 커피와 연결

Case 2_

오션월드 "하태하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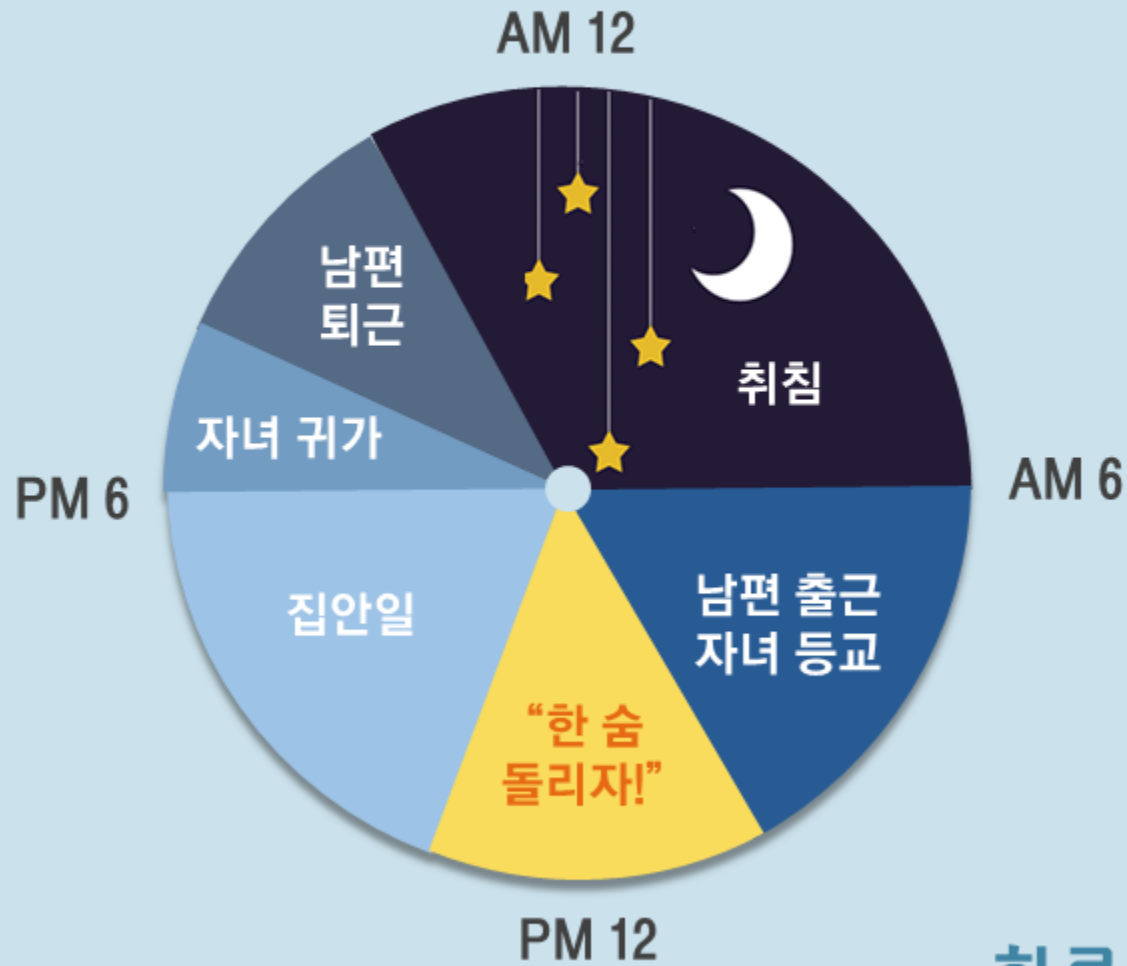
무더운 오후(Time) 시원한 수
영장(Place)에서 신나게 놀고
싶을 때(Occasion), 오션월드의
'하태하태'를 떠올리게 함

*출처 : KT&G 상상유니브 및 자체분석

>> 스포츠워킹만의 TPO를 강조해,
특정 TPO에서 스포츠워킹이 1순위로 생각나게 하자.

03 / 솔루션

그렇다면, 스포츠워킹의 TPO가 될 수 있는 것은?



>> 3555 주부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03 / 솔루션 반전 있는 3555 주부들!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쁜** 그녀들.

자식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남편까지 챙겨야 하고....

어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네!



동시에 **'Hot한 꽃누나'**인 이들.


오전 11시, 서울 A호텔의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 있는 이들은
멋스럽게 차려 입은 30, 40대 여성들. 그녀들은 브런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이들은 '내'가 얼마나 즐겁고 만족
하냐를 행복의 지표로 삼는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행복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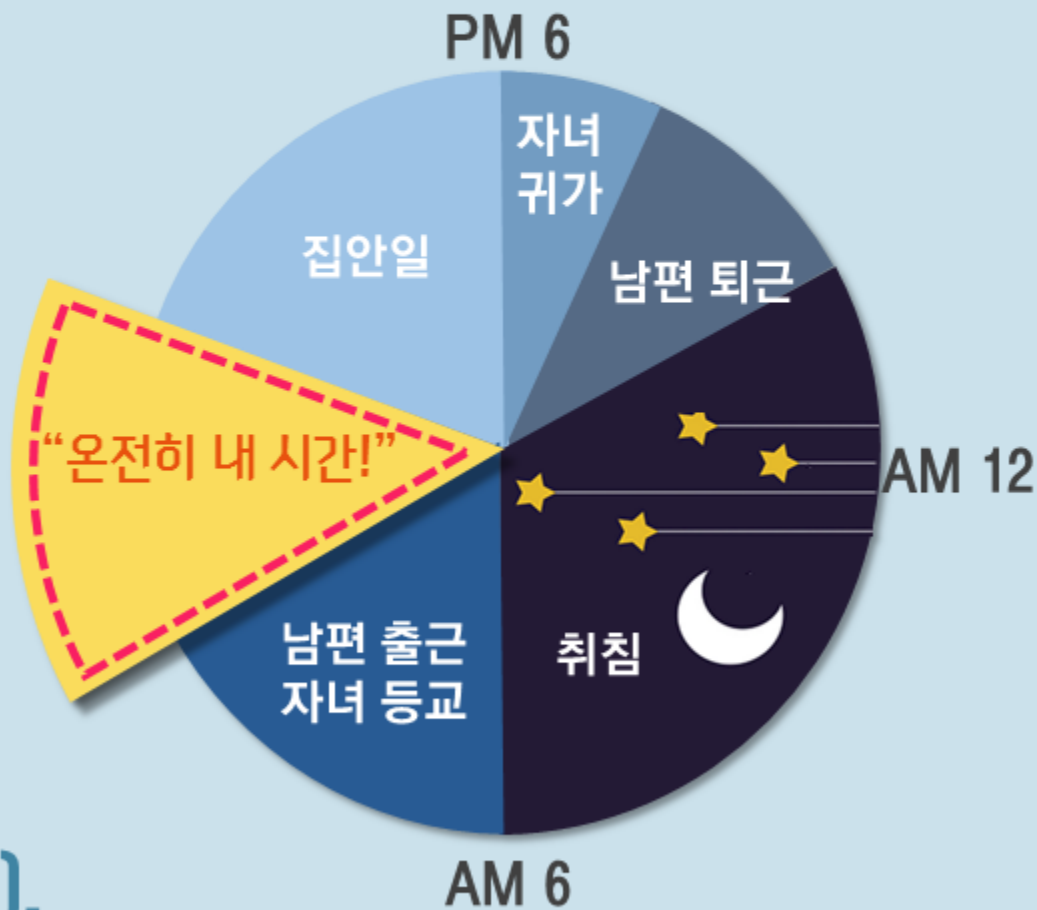


03 / 솔루션 바쁜 그녀들이 꽃누나가 되는 Time & Place & Occasion은,

AM11 - PM14



정신 없는 아침 직후,
집과는 멀지 않아도,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



>> 정신 없는 아침을 보낸 직후(T),
집 근처(P)에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함을 찾는 상황(O).

3555 꽃누나들이
정신 없는 아침 직후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함을 찾을 때,

스포츠투킹을 떠올리게 하자!

03 / 솔루션 이 시간대에 행하는 Daily Routine이지만 특별함이 가미된 것은?

[브런치 (Brunch)]



아침식사(Breakfast)와 점심식사(Lunch)의 합성어로,
두 식사 시간 사이 즈음에 먹는 이른 점심.

[브런치...일상의 여유를 찾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접시지만 괜히 이 브런치 한 접시에 모두의 얼굴에 **여유**가 찾아 들었다.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누리고 싶은 **호사** 같은 것이랄까. 단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을 때** 쓰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출처 : 헤럴드 REAL FOODS, 2015.12.02

➔ 밥을 먹는 행위는 매일의 일상적인 행위지만, 똑같은 식사라도 Brunch는 **여유**로움, **나를 위한 선물** 등과 같은 **특별한 느낌**을 준다.

>> 그것은 바로 **Brunch!**

“오늘의 브런치는 스폰스워킹!”

브런치의 특별함같은
워킹의 특별함.
브런치워킹

[브런치 & 브런치 후 티타임을 컨셉으로 한 Big Idea Campaign]

인지

Gathering Time

커피 프랜차이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Brunch Walking 관심 유도

공감



Brunch Time

Brunch Walking 체험을 통한 공감 증대

확산

Tea Time

Brunch Walking에 대한 공감 확산 방안

컨셉 인지

잡 지 광고
매장 포스터
아침드라마 ppl
TVC ver.1

프로모션 인지

카페 컵홀더
TVC ver.2



브런치워킹 교실

한강 브런치워킹 쿨링로드



프로스펙스 브런치워킹 서포터즈

05 / IMC IMC_Gathering Time (컨셉인지)

>> 잡지광고: “브런치 하셨나요?”

e Sports For

ndaers perrorem abormaxima
riderorernam quatestate

voluptas volorissequi
um quidem vellate
oreste nonet veriate
venet molenti beario
is estius renat dolup
voluta sedtae ma
c, sum latibus etur
estia nis voluptatem
noti inihill oribustio
quamenimus dokup
rem quaserrum aut
s arumet eati omnos
deliatqui tempel
in hit autem solorro
tas ipite nument.

◆ Fitness Bicycle

Fitness ommoluptas vo
lorissequi suntum
quidem vellate mporomp
oreste nonet variatem. Et
venet molenti beario volupta
nis estius renat dolupic te
volupta sedtae ma porruptur,
sum latibus etur ma a quaestia
nis voluptatem sit quam nosti
inihill oribustio quam sequa
menimus dokupat.Molorem
quasperrum aut que pa dus
arumet eati omnos pelentis
deliatqui tempel etustorum
hit autem solorro offErum utas
ipite nument.Ebis rem quis
convinu, ut es a aborem. Con
sent, Ur, con rendam, nessed
qui alicias pudsecabor re na
temperspit hiliquam, vido et
qui remporibus, officia imus

cum rectios
cipsum qui il
em culparc
omninin ven
gnition

브런치 하셨나요?



실행 방안

카페나 미용실에서 흔히 보이는 여성 잡지의 페이지 두 장을 겹쳐 하나의 광고 페이지로 제작한다.

시계 안에 Am11시~pm14시 부분에 브런치 사진과 “브런치 하셨나요?” 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페이지 두 겹 사이에 스포츠워킹을 하는 사람의 사진을 끼워 넣어 감추고, 프로스펙스 워킹화 모양의 손잡이와 연결시킨다.

이때 사진에는 “브런치처럼 특별하다, 스포츠워킹” 문구가 쓰여 있으며, 손잡이를 당기면 해당 사진이 달려 나오게 된다.

기대 효과

타겟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비치된 잡지에 광고를 삽입해 도달률을 높일 수 있으며 브런치 사진을 잡아당기면 곧바로 스포츠워킹 사진이 나오게 함으로써 ‘브런치’와 ‘스포츠워킹’의 연관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05 / IMC IMC_Gathering Time (컨셉인지)

>> 매장포스터

실행 방안

프로스펙스 매장 앞과 백화점 벽에 포스터 제작 후 이를 게시한다.

기대 효과

브런치 타임에 걷는 모델의 모습을 시계 속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본 기획서의 컨셉인 브런치 워킹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다.



브런치 타임에 스포츠워킹을 즐기는
특별한 당신이 되세요.

05 / IMC IMC_Gathering Time (컨셉인지)

>> 아침드라마PPL

실행 방안



#1 바쁜 아침을 보낸 주인공



#2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인 것을 확인한 후...



#3 프로스펙스 스포츠워킹화를 신는다.



#4 집 근처 도심에서 멋지게 스포츠워킹하는 모습으로 End

기대 효과

브런치 타임 직전인 아침드라마 속 에서 간접광고를 하여 주부워커들의 워킹 욕구를 자극하고 주인공이 프로스펙스의 제품을 착용하고 스포츠워킹을 함으로써 브런치워킹이라는 컨셉을 알릴 수 있다.

05 / IMC IMC_Gathering Time (컨셉인지)

>> TVC ver.1

실행 방안



#1 브런치 테이블이
보이면서 시작



#2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고
프로스펙스 워킹화를 신는 모델



#3 Nar
“브런치 타임에 즐길 수 있는 건
스포츠워킹이니까!”



#4 배경이 점차 시계 속으로
삽입되면서 컨셉 슬로건
나레이션과 함께 End

기대 효과

스포츠워킹이 브런치 타임에 행하는 특별한 취미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05 / IMC IMC_Gathering Time (프로모션 인지)

>> 카페 컵홀더



실행 방안

프랜차이즈 카페의 컵홀더에 프로모션을 위한 인원 모집 광고글과 프로모션 소개 글을 게시한다.

기대 효과

전업주부들의 방문이 잦은 카페와 협업함으로써 프로모션의 대상인 **주부타겟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다.**

05 / IMC IMC_Gathering Time (프로모션 인지)

>> TVC ver.2

실행 방안



#1 Nar
“오늘은 브런치나 즐겨볼까?”

#2 말을 마친 후,
프로스펙스 워킹화를 신는 모델

#3 Nar
“오늘의 브런치는
스포츠워킹으로 결정!”

#4 Nar
“브런치워킹, 함께 하실래요?”

기대 효과

스포츠워킹이 브런치 타임에 행하는 특별한 취미라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 주부들의 프로모션 참여 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05 / IMC IMC_Brunch Time (공감)

>> 프로스펙스 브런치워킹 클래스



실행 방안

매주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11시-14시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워킹 전문가의 지도 하에 다같이 워킹을 한다. 워킹이 끝난 후 매 회 5명에게 추첨을 통해 “오늘의 브런치는 스포츠워킹” 이라고 쓰여 있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기대 효과

워킹을 바른 자세로 ‘제대로’ 하고 싶은 타겟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후 커피 쿠폰에 쓰인 문구를 보며, 브런치의 특별함과 스포츠워킹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05 / IMC IMC_Brunch Time (공감)

>> 한강 브런치워킹 쿨링 로드



* 쿨링포그 :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해 주위의 온도를 3-5도 낮춰주는 옥외 공간 냉방 시스템

실행 방안

브런치워킹 클래스를 진행 시의 시간대를 감안해, 여의도 한강 공원 보행자 도로에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한다. 이때, 브런치워킹 클래스 운영 시간인 11-14시, 초여름부터 초가을 경 더운 시기에만 쿨링포그가 작동된다.

한편 쿨링로드를 지날 때 누구나 완료할 수 있는 쉬운 미션 사진을 찍게 한다(Ex_손으로 브이 표시하고 사진 찍기). 미션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얼음물을 증정한다.

기대 효과

특별한 장치인 쿨링로드를 통해, 타겟들 스스로가 '특별한 건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더위와 상관 없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05 / IMC IMC_Tea Time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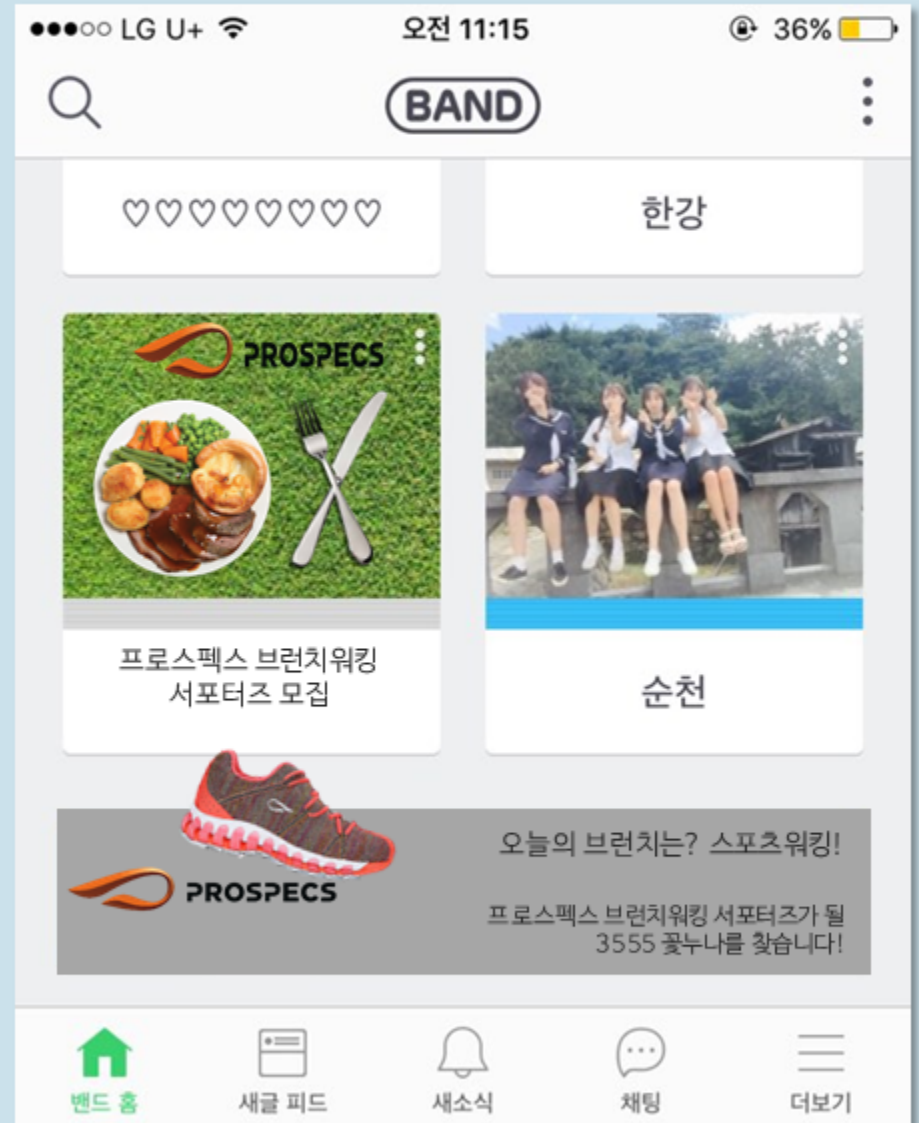
>> 프로스펙스 브런치워킹 서포터즈

실행 방안

브런치워킹 클래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모션이다.

1. 네이버 밴드 어플 초기화면에 서포터즈 멤버를 모집하는 홍보 페이지를 뜨게 해, 강동, 강서, 강남, 강북 각 지역구 당 20명의 멤버를 모집한다.

(뒤 페이지에 이어)



05 / IMC IMC_Tea Time (확산)

>> 프로스펙스 브런치워킹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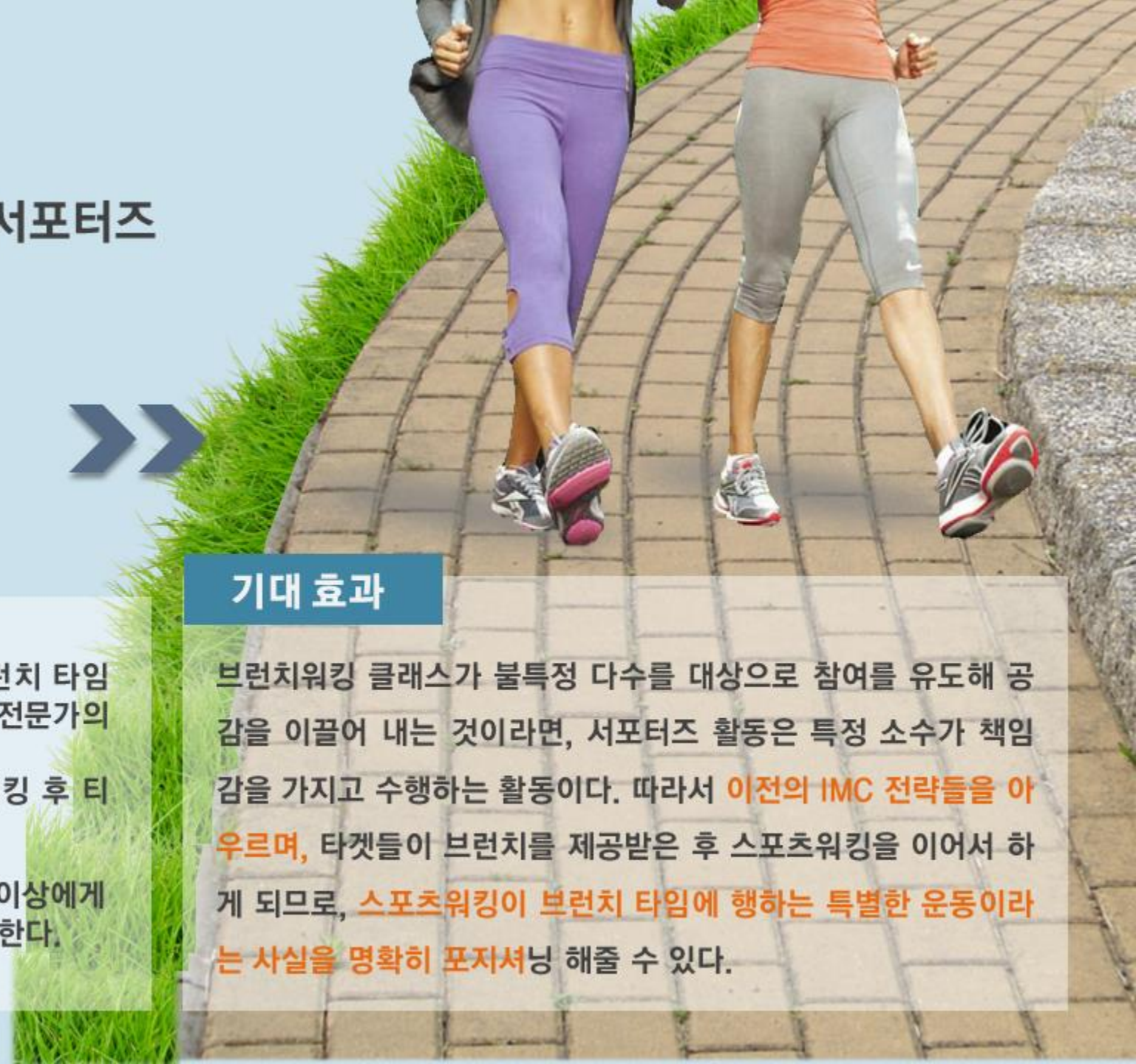
실행 방안

2. 한 달 간 매주 11시 - 14시에 주기적으로 모여 브런치 타임을 가진 후, 브런치워킹을 함께 한다. 이때 워킹은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된다.
3. 매주 운동이 끝난 후, 커피 쿠폰을 증정해 브런치워킹 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서포터즈는 활동이 끝나기 전에 의무적으로 지인 5명 이상에게 서포터즈 활동을 소개해주고, 소개 인증샷을 촬영해야 한다.

기대 효과

브런치워킹 클래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서포터즈 활동은 특정 소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전의 IMC 전략들을 아우르며**, 타겟들이 브런치를 제공받은 후 스포츠워킹을 이어서 하게 되므로, **스포츠워킹이 브런치 타임에 행하는 특별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포지셔닝** 해줄 수 있다.



프로서펙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런치타임**

보런치의 특별함을 담은 스포츠워킹,
모두에게 특별한 취미로 다가갈-

